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223>

JCCT 2023-1-29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비)대면 교육 상황 속 생활경험

University Students' Life Experiences in (Non-)face-to-face Education Situations due to COVID-19

안영미*, 안영란**

Youngmi An*, Youngran An**

요약 본고는 지난 2년여간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대학생이 겪은 변화와 이에 대한 경험 및 적응의 과정을 실태 분석과 제언으로 제시했다. 교육 객체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질적 분석방법으로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생활경험 전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코로나19 이후 수업 및 생활, 정서 경험을 아우르도록 구성하였고, 응답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새로운 체계로의 적응과정, 일상의 실금, 건강을 위한 고군분투, 연결에 대한 갈망'의 네 가지 상위범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예기치 못한 도전 상황 속에서 겪는 대학생 개인의 경험과 내밀한 변화를 분석하고 대학과 사회, 정부가 조명하고 반응해야 할 면면을 촉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대학생, 심층인터뷰, 팬데믹, 생활경험, 범주화

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the actual situation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the changes, experiences, and process of adaptation that college students have experienced throughout their studies and life over the past two years and mo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ducational objects, an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explore the overall living experiences under the pandemic situation. The interview questions were composed to cover classes, life, and emotional experiences after COVID-19, a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sponses boiled down to four super-categories of 'adaptation process to a new system, daily incontinence, struggle for health, and longing for conne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experiences and intimate changes of individual college students in unexpected and challenging situations, and urged the myriad aspects that universities,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illuminate and respond to.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In-depth Interviews, Pandemic, Life Experiences, Categorization

1. 서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우리 삶의 영역을 모조리 바꾸어놓았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혼란과 변화가 단연 큰 영역은 교육현장으로[1], 이로 인해 교육현장은 새로운 체제 도입을 위한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교육의 전 영역에서 전체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강서대학교 G2빅데이터경영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yyrran@gangseo.ac.kr

Dept. of G2 Big Data Management, Gangseo Univ, Korea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 교육이 대규모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2],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는 상이한 양상 및 의미를 가진다[1]. 교육학 분야의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실천되어 온 원격교육과 이러닝,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등 핵심 이슈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체제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3].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 이전에 드러나지 않던 새로운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실천 현장의 교육 주체인 학교의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1].

코로나19는 2020년 초에 시작되어 우리 생활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교육의 장인 학교는 대혼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초·중·고·대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고, 거듭된 연기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수업이 시작되었다[4]. 코로나19의 상황은 잠시의 유행으로 머무르지 않고 2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장기적인 유행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덧붙여지면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 이전 비대면 수업은 주로 온라인 수업이 기반이 되는 사이버대학과 에콜42,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학습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국내외 대부분 대학에서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비대면 동영상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강의방식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동반하도록 하였다. 2022년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한 풍토병 상태로[6] 정착하기까지 최소한 5년은 더 소요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수년 동안은 다양한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2020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학교생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비대면 수업체제를 경험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들의 학업이나 대학생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비대면을 통한 학습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교수자들은 학습자의 학습과정, 인식, 태도변화에 조응하며 학생 수준에 적합한 상호작용으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했다. 코로나19 이전의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학습 콘텐츠 제공과 함께 학습 인증의 검토를 위한 종합평가만 실시하였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이 비대면으로 학습,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퀴즈를 비롯한 과제, 토론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형성을 위한 수업방식의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7].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변수였으므로 대학의 돌연한 수업방법의 변화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대학생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동반하였고, 이는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뿐 아니라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교수자,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 21학번 학생들의 대학생활은 잃어버린 2~3년이 되었으며[8], 특히 전문대학에 입학한 20학번 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추억 하나 없이 허무하게 대학생활이 끝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기존에 알고 있던 대학생활이나 관계가 모두 증발해버렸다. 새로운 수업방식에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줌(Zoom) 활용 강의 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렇듯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학 교육은 새로운 조건, 과정, 그에 따른 결과의 진단을 위한 실천적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9,10].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닥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대학 당국과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생활적응과 질 높은 강의 운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대학생들의 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의 마련이 요구된다[11].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생활

경험 및 비대면 교육과 대면교육 경험에 대해 탐색해 보고 이런 경험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욕구가 무엇인지에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현상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의미를 제안하기 위해 교육 객체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로서 대학생들의 생활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학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형식 상의 기틀은 다른 모든 교육의 기본 형태인 대면 교육이다. 교·강사와 학생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대학 교육에 미친 대표적인 상황은 이 대면 교육을 포기하고 대체 방안인 온라인 강의로 옮겨간 것이다. 이제 온라인 강의는 국내의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전례 없는 경험을 가져왔고, 보다 나은 수업 환경과 생활 현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학에서는 2020년 이후 갑작스런 온라인 중심의 수업방식의 진행과 대학시설 폐쇄로 인한 캠퍼스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학생활 자체가 기록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교육을 진행하게 된 대학은 대학교육의 질적 보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업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대학환경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가 학생의 개별 역량이나 노력에 좌우된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1].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경향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있다[2,12,13,14,15]. 온라인 교육의 기본적인 연구를 기초로 2020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분석과 2020년 상반기 기사에 602건 이상의 ‘온라인’ 또는 ‘E-러닝’, ‘교육’, ‘코로나’를

포함하는 국내의 언론보도가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1].

두 번째 경향으로는 비대면 수업의 실시로 인한 실습 또는 실험과목의 미실시에 대한 경험 분석이다. 실습이 중요한 교양체육 실기수업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강사의 어려움에 대해 질적 사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하거나[16], 작업치료사의 실습 중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인식에 대해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살펴본 연구[17], 간호대생이 온라인 비대면 간호학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실습경험에 대해 분석[18,19,20], 음악학과의 온라인 대체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21]들이 있다.

세 번째 경향으로 비대면 수업 실시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학습패턴과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학습자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안정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업모형의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23]. 또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및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24,25].

네 번째 경향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및 대학생활 변화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26,27]. 일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 경험, 환경적 변화 경험을 다룬 연구가 있다[28,29]. 김자숙, 박아영[30]은 재난 상황 하에서 온라인 학습자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고 학습자의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에서 외로움과 유튜브 과다사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다[31].

다섯 번째 경향으로는, 온택트 시대가 가속화시킨 대학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 대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해본 후, 4차 산업혁명과 온택트가 전면화되어 일상이 되는 환경에서 앞으로의 대학교육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근래의 다양한 예측들을 검토해보고, 미래 사회에서는

대학이 주로 교육해온 직무와 직업이 크게 변화할 것이기에 그에 따라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학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32,33].

그 밖에도 대학 신입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34,35,36,37]. 한편, 최근의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비대면 수업의 특성, 효과성, 문제점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학생활과 학습경험 및 정서 상태에 대해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대면 수업 학습상황과 생활경험의 전면적 변화 및 이의 수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험과 인식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대면 수업은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경험에 대해 총괄적으로 이해하여 학습상황의 전체적인 변화와 이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으로 본 연구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전체 6명이다. 1학년과 2학년은 대학 입학 시점부터 비대면 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받아 온 학생이며,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대면수업 중심의 교육을 경험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질적연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적연구와 달리 표본의 대표성이나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보다는 그 표본들을 통하여 얼마나 심층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 주요한 사항이다[38,39]. 이 점을 기초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질적연구의 다양한 표본추출유형 중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유의표집에 기반한 정형적 사례 방식 및 눈덩이표집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에 시작되어 2021년 11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일대일 방식을 통해, 1회당 40분을 최소 시간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1-2회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개별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평일과 주말 저녁 시간을 이용하였다.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줌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와 녹화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의 인터뷰는 1인당 최소 1회에서 최대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종결 시기는 전사내용에 대한 연구자 간의 상호교차검증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 녹취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자료들은 Creswell[40]과 Neuman[41]이 제시한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앞서 연구자가 각각의 전사본을 따로 읽어가며 개방 코딩을 하였고, 연구자 간의 공통된 개방 코딩 결과의 요소만을 범주화하여 첫 번째 코드집을 완성하였다. 첫 번째 코드집은 전사본과의 반복, 비교과정을 통해 새로이 보태야 할 코드를 추가하거나, 의미상 분리해야 하는 코드에 대해서는 반복된 협의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완성하였다. 최종 코드집은 10회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이는 복수의 연구자가 코딩 작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관찰자 간 신뢰도의 일치가 완전히 될 때까지 반복하여 상호교차하여 검증하는 삼각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이름	성별	학년	거주지역	연령	수업 방식
A	여	'14	일산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학년도)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 • (2021학년도) 비대면 수업 원칙. 동영상 수업이 기본이며 실시간 수업 가능 ※단, 전공과목 중 20명 이하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 권고
B	여	'19	인천	21	
C	남	'16	일산	28	
D	여	'20	인천	20	
E	여	'17	인천	22	
F	여	'18	서울	23	

본 연구의 중점 질문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 및 대면 수업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생활경험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한가?”이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목적 및 주된 연구 질문에 대하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한 다음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 참여자 스스로 이야기하는 데 중점을 두며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대면 및 대면 수업 경험과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통하여 실제 특징을 찾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내용분석 방법을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은 비구조화 된 개방적인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응답자의 다양한 관점 및 반응 확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면의 의식이나 태도를 다루는 연구에 보다 적합하다 [42,43]. 무엇보다 내용분석 방법은 심층면접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코딩과 범주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44]. 먼저 분석단위의 선정을 위해, 전사된 전체 심층면접 녹취록을 각각의 참여자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읽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의미 있는 진술에 단어와 구문을 분석단위로 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진술로 표시된 자료를 중점으로 하여 전체 면접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동일한 의미의 구문, 문장을 묶는 작업을 진행하고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념, 원자료 사이의 연관성을 백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검출된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과 범주를 재정립하며 찾아내었다.

3. 연구의 민감성, 엄격성 및 윤리적 검증

본 연구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 & Guba[45]의 엄격성 검증 기준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임의적인 왜곡의 최소화를 위해 심층 인터뷰 실시, 자료 포화상태 확인, 심층 인터뷰 종결 시점 결정, 자료의 범주화와 개념화 및 주제 분석과 내용 분석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자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교차 검증 방식인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자료수집 시작 시점부터 본 연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대학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는 사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밝혔으며,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인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원하면 언제든지 응답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참여자가 생각을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참여자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며, 진술에 대해 연구자의 가치판단이나 해석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한편, 더욱 정확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이해되지 않는 경우나 불분명한 표현에 대하여 재질문을 통해 명확성을 기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 충족을 위해 Lincoln & Guba[45]의 4가지 기준인 적용성(Transferability), 신빙성(Credi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을 적극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신빙성 확보를 위해 주제 선정 단계부터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지속적인 면접 및 자료수집에 끈기 있게 전념하였다. 특히 ‘연구자 삼각측정법(Analyst Triangulation)’을 이용하여 전체 연구자가 풍부한 커뮤니케이션과 토론을 통하여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신뢰성의 측면에서 내용분석을 통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정교한 연구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피드백을 구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학 교수 1명, 교육학 교수 1명에게도 연구 윤리적 측면, 연구 절차 및 방법, 범주화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연구 전반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을 성실히 고려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질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 및 대면 수업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생활경험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한가?”였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생의 경험과 인식 분석 결과, ‘즉각적인 소통 가능’, ‘조활동 통한 친근감 증가’, ‘온라인 웹 장애’ 등 45개의 의미단위, ‘실시간영상 수업’, ‘녹화영상 수업’, ‘대학생활의 변화’를 비롯한 10개 하위범주 및 ‘새로운

표 2.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생의 생활경험 및 정서상태
Table 2. University Students' Life Experiences and Emotional States under COVID-19

상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새로운 체계로의 적응 과정	실시간영상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소통 가능 • 조활동 통한 친근감 증가 • 온라인 웹 장애 • 시스템 적응 어려움 • 인터넷 이용 및 장비 부담 • 통제하기 힘든 외부 환경 • 카메라 꺼도 되는 수업은 나태해짐
	녹화영상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꼼꼼한 공부 가능 • 단순암기 과목은 질문 없이 외우면 되므로 편리 • 유혹과의 싸움 • 집중이 어려움 • 학습에 대한 불확신 •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증가 • 교수자와 상호작용의 어려움 • 과제량 증가로 인한 부담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 가능 • 온라인 가능한 수업은 계속 유지 원함
	대학생활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통한 내적성장에 대한 아쉬움 • 정확한 정보 전달력 저하 • 교환학생 기회 좌절 • 통학시간 절약 • 효율적인 시간 활용 • 경제적 이점 • 쉬운 접근성
일상의 실금	불규칙한 생활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누적 • 나른하고 게을러짐 • 밤낮 뒤바뀜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량 저하 • 인터넷 중독 증상 발생
	부모님과의 갈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한 갈등 증가
건강을 위한 고군분투	신체건강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저하 • 배달음식 섭취 증가 • 자기관리력의 중요성 증가
	정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소되지 않은 외로움 • 통제 상황에 대한 압박감 •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
연결에 대한 갈망	대인관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없는 느낌 • 학생 간 교류 단절 • SNS만으로 제한된 소통 • 동아리 활동 못함 •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닌가 걱정
	신입생 생활의 박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함 • 동기도 모름 • 친구 사귀기 어려움

체계로의 적응과정', '일상의 실금', '건강을 위한 고군분투', '연결에 대한 갈망' 등 총 4개의 상위 범주로 범주화되었다.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의미단위와 범주는 표 2와 같다.

1. 새로운 체계로의 적응과정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예상치 못한 수업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화와 대학생활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던 수업의 급작스런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수업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업방식의 변화에 따른 과제 및 시험방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체계에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적응과정을 통해 비대면 체계의 이점과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실시간영상 수업

실시간영상 수업은 녹화영상 수업에 비해 교수자나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조활동이 가능하여 학생들 사이에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한편,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 온라인 접속 상태가 안정적인지 못한 경우 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외부환경 문제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장비에 대한 비용에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었으며, 화면을 끄고 듣는 수업의 경우 학생 스스로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점차 타성에 젖게 되며 나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각적인 소통 가능

zoom으로 이렇게 실시간 강의로 하는 거는 같이 대화를 할 수는 있어서 채팅이나 그런 걸로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참여자 B)

• 조활동 통한 친근감 증가

오히려 줌에서도 조 활동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좀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참여자 B)

• 온라인 웹 장애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끊긴단 말이에요. 제가 화면 공유할 때 영상을 보는 일이 좀 많았는데 화면이 막 끊겨서, 이게 사진 캡처를 한 걸 넘겨서 보는 건가. 이게 영상을 보는 건가 이럴 정도로. (참여자 F)

• 시스템 적응 어려움

적응하기에 솔직히 힘들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교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업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이게 공부를 하는 건가.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좀 쉽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았죠. (참여자 F)

• 인터넷 이용 및 장비 부담

노트북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빈부가 있을 거고 한데. (참여자 F)

• 통제하기 힘든 외부 환경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집에 동생들이 있어서 이게 줌을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다른 분이 방해될까 봐 그런 걱정도 살짝 있고요. (참여자 D)

• 카메라 꺼도 되는 수업은 나태해짐

실시간 수업이다 보면 저희가 지금 줌 켜서 하는 것처럼 화면을 켜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화면을 켜지 않고 참여해도 되는 수업에서는 이 카메라를 끄고 수업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업을 들으면서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자 E)

2) 녹화영상 수업

참여자들은 녹화영상 강의가 반복해서 볼 수 있어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시험 볼 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질문이 없는 단순 암기 과목의 경우에 질문 없이 외우면 되기 때문에 실시간영상 강의보다 녹화영상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영상을 보면서 집중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강의를 듣기 때문에 잠깐 SNS를 본다든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인터넷강의를 듣는 느낌이어서 빨리 듣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학생이 있었으며 공부가 되는 건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도 존재하였다. 또한 동영상강의의 경우 교수자에게 질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이 있을 때 시간에 제약이 있거나 상호작용이 어려워 답을 듣고 다시 질문이 생겼을 때 또다시 질문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든 가능한 과목은 녹화영상 강의의 장점을 살려 유지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 꼼꼼한 공부 가능

영상 강의에서는 노트 정리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거 계속해서 공부를 꼼꼼하게 볼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공부에는 되게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 자세히 보고 할 수 있어서 그건 되게 좋은 좋았고요. (참여자 B)

• 단순암기 과목은 질문 없이 외우면 되므로 편리

비대면의 학습 효과는 아까 단순한 이런 정보들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단순한 정보를 공부할 때는 질문이 많이 없고 예를 들어서 좀 암기 과목 같은 것들. (참여자 C)

• 유희과의 싸움

동영상은 그냥 짬 내서 잠깐 그냥 틀어놓고 딴 짓하고 SNS 하면서 약간 그건 진짜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과연 그거를 100% 이해를 할까요. 저는 100%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동영상으로 들었던 수업 들은. (참여자 F)

• 집중이 어려움

이게 휴대전화를 키고 또 공부를 하러 들어가면 또 그전에 잠깐 볼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시간이 되고 또 수업을 듣다가도 중간 중간 그냥 계속 핸드폰을 들고 수업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수업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 제대로 하지 이런 생각.... (참여자 D)

• 학습에 대한 불확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대면 수업 때와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많이 잘 습득을 할 수 있고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수업에 정보나 지식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걱정 염려도 있었어요. (참여자 E)

•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증가

온라인 강의 이제 듣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자습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가 됐고요. (참여자 F)

• 교수자와 상호작용의 어려움

저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교수님께 선불리 하지 못하는 게 질문이 계속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수님께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 교수님께 또 누가 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쉽사리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 과제량 증가로 인한 부담

아무래도 과제로 교수님들께서 출석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아셔야 하니까 과제량이 좀 많아져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참여자 F)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 가능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제약이 없이 녹화된 영상은 시간 제약이 없이 제가 들을 수 있다는 점... (참여자 C)

• 온라인 가능한 수업은 계속 유지 원함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에 대해 조금 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그게 또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여자 C)

3) 대학생활의 변화

참여자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적인 성장을 얻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정보전달에 있어 학교에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많은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학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에 입학한 후 더 폭넓은 공부를 위해서 교환학생에 참여하고자 기대하였으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안타까워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비대면교육의 가장 큰 이점으로 학교와 집이 먼 경우 이동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장소에 구애 없이 접속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 교류 통한 내적성장에 대한 아쉬움

학교에 가서 생선적인 사람을 만나고 또 비대면으로 할 때는 그냥 그저 공부만 했는데 대면으로 할 때는 공부도 하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내적인 성장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교류가 많았을 텐데 그런 단절됨이 그게 비대면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자 D)

• 정확한 정보 전달력 저하

인터넷을 이용해서나 혹은 문자를 이용해서든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면을 했을 때 그 정보를 받는 거랑...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참여자 C)

• 교환학생 기회 좌절

중국은 정말 가고 싶었는데 교환 학생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참여자 F)

• 통학시간 절약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시간 절약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은 한 시간 반 전이니까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제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참여자 C)

• 효율적인 시간 활용

제일 큰 장점은 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일어나서 바로 잠을 더

잘 수 있고 그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참여자 F)

• 경제적 이점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 시간과 그 등교해야 될 때 시간과 돈이 절약이 된다는 점... 지각 안 할려고 막 헬레벌떡 뛰어서 택시 타고 그러지 않는 건 정말 좋은 점이고요. (참여자 F)

• 쉬운 접근성

대면 수업은 또 학생들하고 교류가 되니까 그건 좋은데 조금 학교가 먼 학생들도 가기가 힘들니까 네 그런 거 장소에 좀 구애를 받는 거죠. (참여자 B)

2. 일상의 실금

1) 불규칙한 생활습관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바깥활동의 제약이 있어 이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했다. 비대면 강의를 듣고, 과제를 위해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더불어 밤낮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얻게 되었으며 평소 생활에서 나른함과 함께 게을러지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 피로누적

과제를 해결하려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노트북을 가지고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런 인터넷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서 피로해서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참여자 E)

• 나른하고 게을러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는 느낌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 밤낮 뒤바뀜

일단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수업도 그게 실시간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비대면 녹화영상인 경우에는 또 체가 어느 원할 때 들을 수도 있으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습관화가 돼서... (참여자 D)

2)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 증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활동량이 저하되고, 핸드폰이나 스마트기기의 사용증가로 인해 수업에 대한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스마트기기에 의존하게 되는 등 인터넷 중독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활동량 저하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좀 많이 게을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적이지가 않으니까 애초에 신체적으로. (참여자 C)

• 인터넷 중독 증상 발생

저는 좀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안 보는 성격인데 오히려 더 집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3) 부모님과의 갈등 증가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참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을 겪기도 하는 등 부모님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었다.

•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한 갈등 증가

어려운 거는 부모님... 제가 집에서 무뚝뚝한 편이어서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잘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엄마 풀어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엄마 말 들어주고, 코로나가 많은 것을 저희에게 던져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갈등이 더 많아졌다, 그런 거. (참여자 F)

3. 건강을 위한 고군분투

1) 신체건강 변화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과 바깥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 환경이 좁아지고 움직임이 최소화되었다. 이로 인해 저하된 체력의 영향으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의 섭취가 증가하고 움직임은 줄어들게 되어 몸이 둔화됨을 느끼고 있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운동을 시도하기는 하나 지속적인 실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체력저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혹은 이제 이런 생활 반경이 줄어들에 따라서 체력적인 문제는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바깥 활동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몸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하더라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활환경이 줄어들어서 움직임이 최소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줄어든 거는 느껴진 것 같아요. (참여자 E)

• 배달음식 섭취 증가

배달 음식이 너무 대중화 돼 있어서 그런 좀 조미료에 많이 켜 있는 이런 음식들 반조리 음식들 이런 걸 좀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몸이 분명히 둔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참여자 F)

• 자기관리력의 중요성 증가

집에서 따로 운동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어느 정도 한정된 장소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접 밖이나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제약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쉬게 돼서 다시 원상태로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2) 정서 변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과 함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환경은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을 깊어지게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 해소되지 않은 외로움

아무래도 온라인은 조금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주고 받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은 그래도 한번씩은 만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감이 라든지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더 외로워하고 더 우울함이 더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참여자 C)

• 통제 상황에 대한 압박감

아무래도 이게 강압되고 압박이 돼 있으니까 뭘 하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참여자 F)

•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저는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제가 스스로 나가지 싫어 이렇게 해서 가만 있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강제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참여자 E)

•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여러 모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에 대해서. (참여자 E)

4. 연결에 대한 갈망

1) 대인관계 부족

대학교 친구들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만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더욱 멀어지게 되기도 하였다. 편입생의 경우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를 가질 수 없다보니 친구가 없어서 홀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대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류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 친구가 없는 느낌이고,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 친구가 없는 느낌

제가 또 편입생이여가지고, 코로나 때 편입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과 정말 교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전 학교 학생들은 친한데 여기서는 친해질 겨를이 없으니까 짝도 없고 틈도 없고 이러니까 되게

외롭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느낌이고 네, 친구가 없는 느낌. 그래서 너무 외로운 기분이기도 하고. (참여자 B)

• 학생 간 교류 단절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조금 안 되게 되고. (참여자 C)

• SNS만으로 제한된 소통

단체톡방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놓치는 거죠. 학교 공지에 있는 거랑 또 다르게 더 좀 많고 좀 섬세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끼리 소통하는 거는 그거 아마 안 보고 넘기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참여자 F)

• 동아리 활동 못함

학생들의 교류가 동아리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게 조금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참여자 B)

•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닌가 걱정

저만 약간 도태되는 건가 이런 식의 걱정이 있었어요. (참여자 D)

2) 신입생 생활의 박탈감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경우 대학교 생활에 대해 기대하였던 로망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며,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동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나만 동기가 없는 건가’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대학생활에 대해 치명적인 상황으로 느끼고 있었다.

•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함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정말 아무것도 경험 못해봤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과 관계 이런 것도 많이 꿈꾸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학교 위치도 잘 모를 것 같고. (참여자 F)

• 동기도 모름

밑에 학번의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기 동기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보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이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E)

• 친구 사귀기 어려움

이제 신입생들은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저만 약간 동기가 없는 건가 이런 걱정도 되고. (참여자 D)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수업방식의 변화와 대학생활의 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생이 겪고 있는 변화와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의 경험을 이해하고 대학생활의 적응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총 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 및 대면 수업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생활경험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세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 및 대면 수업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계로의 적응과정’ 하에 ‘실시간영상 수업, 녹화영상 수업, 대학생활의 변화’라는 범주로서 의미있는 내용을 구성해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생활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일상의 실금, 건강을 위한 고군분투, 연결에 대한 갈망’이라는 범주 각각에 대해 생활습관, 건강,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하위범주를 구성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질문인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정서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4가지 상위범주 즉, ‘새로운 체계로의 적응과정, 일상의 실금, 건강을 위한 고군분투, 연결에 대한 갈망’ 모두에서 의미 있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신, 부담, 좌절감 등의 감정,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 외로움이나 압박감 및 불안과 걱정 등의 다양한

정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수업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를 몸소 겪으며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학업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수업을 듣고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이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을 듣는 데 있어 웹 장애나 시스템 적응의 어려움, 장비 부담, 학생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환경, 수업에 나태해지면서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특징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 점은 비대면수업 상황에서 능동적인 교수자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학생의 태도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온라인 특성에 적합한 구체성 있는 강의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온라인에 최적화된 수업을 설계하고 장애물을 미리 파악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비대면 수업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개설하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뿐 아니라 수동적인 학습자를 위해 학습효과의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관리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대학생은 비대면 학습과 대학생활 변화를 통해 즉각적인 소통과 조 활동을 통한 친근감 증가, 꼼꼼한 공부 가능,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통학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점, 쉬운 접근성과 같은 장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 수업에 적응해 나가면서 이후 수업에 비대면 수업의 이점을 혼합하여 적용한 수업 방식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학습자들은 변화된 방식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게 되었으며, 온라인 수업의 활용 가능성 및 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수업방식은 기존 교수법을 개선하여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활용한 대안을 찾아 적용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점차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부모님과도 같으므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김미란[22]의 오랜 컴퓨터 사용 시간으로 신체의 피로가 증가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미디어 기기 사용과 인터넷의 사용이 급증하여 근육통이나 목저림, 디스크, 눈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46],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및 홍보자료 제작 시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응을 통해 대학생의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26]. 대학생들의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한 균형의 회복을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대학생의 특성과 시기에 적합한 디지털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고립된 생활변화는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쳐 체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대학생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활 경험의 제한으로 대학생들은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김미란[22]과 노성동[4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대학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케어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과 대학생활은 학생들에게 SNS만으로 교류하는 인간관계 측면에서의 제한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신입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대학생활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동기들도 아무도 모른 채 친구를 사귀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 학생상담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소통, 공동체 생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사회변화가 가속화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48]. 2년째 비대면 환경 속에서

제한된 소통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이로 인해 학우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공부 외 대학 활동을 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회의 장 역할을 한다. 학우들이 함께 소통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 문제해결의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사회진출을 위해 준비할 수도 있는 곳이다. 또한 선후배와의 교류와 어울림을 통해 책을 통한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경험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서로 공존하는 곳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선배와 학우를 만나며 학습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내·외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제약이 많았던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대학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축제나 동아리와 같은 여러 행사 및 활동을 경험하며 대학공동체 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은 선후배나 동기의 얼굴도 모른 채 2년이 흘러버렸다[49]. 재학 중에 코로나를 접한 재학생이나 코로나 시국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모두에게 대학은 ‘언택트’ 및 ‘온택트’ 환경에서도 상호작용과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대학생 활 속 충분한 경험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최소 5년간은 코로나19에 계속 시달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하기보다 감기와 같은 풍토병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까지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다[6]. 비대면수업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은 저비용으로 무한한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 비해 차별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2020년 급작스레 이루어진 온라인 교육 환경은 이러한 장점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교육계에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작용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취약성을 해결하는 메신저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은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에 있고 교육의 취약한 부분과 마주하여 그 해결점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지금의 위기와 도전이 도리어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50]. 갑작스런 온라인 교육 환경은 약한 고리를 타고 교육에 대한 차별과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에서

앞장서고[51] 우리 사회 전체가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책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팬데믹 도전 상황 속에서 겪는 대학생 개인의 생활 경험과 내밀한 변화를 분석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명, 반응해야 할 측면을 촉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의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방향은 위기 및 취약계층의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포함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질적연구방법과 그 분석 결과는 이상에서 기술한 결론과 논의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먼저, 조사 시기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이 경과 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대처와 적응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또한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향후 다양한 온라인 설문방식이나 제 3자가 관찰 보고한 자료를 이용하는 등 다차원적 평가가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셋째,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M. Kim, "Analysis of Press Articles in Korean Media on Online Education Related to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1, No.6, pp. 1091-1100, 2020. DOI: 10.9728/dcs.2020.21.6.1091
- [2] J.Y. Park, "A Study on Online Education in Universities Facilitated by COVID-19," *Journal of the KSME*, Vol.60, No.7, pp. 32-36, 2020.
- [3] Stars and Stripes, "Families of DODEA Students in Korea Reveal Pros, Cons of Online Study during Coronavirus Outbreak," March, 2020. Available: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families-of-dodea-students-in-korea-reveal-pros-cons-of-online-study-during-coronavirus-outbreak-1.620920>.
- [4]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Press Releases, 2020. Available: <http://english.moe.go.kr/main.do?>

- s=english.
- [5] Gyeonggi Newspaper, "With the Attitude that you can't Go Back to Before Corona," October 19, 202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71921>.
- [6] JoongAng Ilbo, "'We will suffer from Corona for at least five more years.' A Gloomy Outlook from the British Government Advisory Group," December 6, 20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6239>.
- [7] H.S. Choi,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 273-286,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273>
- [8] Yonhap News, "'Is this year like last year?'... Depressed 22nd Graders Who might Lose their 'Campus Romance'," January 13, 20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916988?sid=102>.
- [9] D.J. Lee and M.S.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23, No.3, pp. 359-377, 2020.
- [10] G.H. Hwang, "A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for Post-COVID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38, No.4, pp. 83-106, 2020.
- [11] K.A. Lee and H.W. Soh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5, pp. 239-254, 2021. DOI: 10.15207/JKCS.2021.12.5.239
- [12] N.H. Um, "Study on Synchronous Online Learning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College Students: Centering around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Co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5, pp. 57-67, 2021. DOI: 10.14400/JDC.2021.19.5.057
- [13] Y.A. Lee, "The Experience of Distanced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Learning in Paramedic Student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KJEMS (Korean J Emerg Med Ser))*, Vol.25, No.2, pp. 157-167, 2021. DOI: 10.14408/KJEMS.2021.25.2.157
- [14] Y.S. Lee and D.K. Shin,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23, No.4, pp. 39-57, 2020.
- [15] Y.H. Hwang and C.S. Kim, "Perceptions toward Non-face-to-face Online Class Oper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and Anxiet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Vol.29, No.1, pp. 71-91, 2021. DOI: 10.24303/lakdoi.2021.29.1.71
- [16] S.H. Kim and S.M. Cheon, "A Case Study of Online Class Operation and Instructor's Difficulties in Physical Education as a Liberal Arts in University Due to COVID-19,"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No.81, pp. 9-26, 2020. DOI: 10.51979/KSSLS.2020.07.81.9
- [17] N.H. Jung,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Experience of Interruption of Fieldwork Practice due to COVID19: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21, No.9, pp. 473-479, 2020. DOI: 10.5762/KAIS.2020.21.9.473
- [18] M.H. Seo, "The Experience of Mixed Lectur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 22, No.3, pp. 129-137, 2021. DOI: 10.5762/KAIS.2021.22.3.129
- [19] S.H. Lim,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tact Er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22, No.4, pp. 195-205, 2021. DOI: 10.5762/KAIS.2021.22.4.195
- [20] M.Y. Kim, Y.A. Kim, and E.K. Byun,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 who Experienced a Non-face-to-face Semester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8, No.6, pp. 167-174, November 30, 2022.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167>
- [21] H.S. Lee,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learning by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Research in Music Pedagogy*, Vol.21, No.2, pp. 177-197, 2020.
- [22] M.R. Kim,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aking Contactless Classes During COVID-19,"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Vol.13, No.1, pp. 533-547, 2022.
- [23] Y.S. Lee,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between Online Learning Patterns and Learning Effects in the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 Society (JKAIS)*, Vol.21, No.8, pp. 557–562, 2020. DOI: 10.5762/KAIS.2020.21.8.557
- [24]J.M. Kim, K.T. Sohn, E.P. Lee, J.Y. Jeong, H.B. Jang, and W.J. Lee,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Student and Student–Student on Learning Achievement in Synchronous E-learning for Major Classe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Learning Flow,”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52, No.3, pp. 25–48, 2020. DOI: 10.23840/agehrd.2020.52.3.25
- [25]Q.H. Lee, “A Reflection on College Education in the Era of Covid-19,”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25, No.1, pp. 81–107. 2022. DOI: 10.17318/jae.2022.25.1.003
- [26]K.S. Kim and Y.J.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9, pp. 644–651, 2021. DOI: 10.5392/JKCA.2021.21.09.644
- [27]W.W. Jung and S.J. Ryu, “The Effects of Telephone Consultation for Prevention of Corona Blue on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Conference Proceedings of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The Korean Society of Psychology, pp. 147–147.
- [28]J.H. Kang, A.R. Bak, and S.T. Ha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5, pp. 289–297, 2020. DOI: 10.21184/jkeia.2020.7.14.5.28
- [29]H.E. Seo and H.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in a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OVID-19: Links to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22, No.7, pp. 41–51, 2022. DOI: 10.22251/jlcci.2022.22.7.41
- [30]J.S. Kim and A.Y. Park. “Predictors of Self-control in Covid-19 Non-face-to-face Online Learning Participa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 453–461, 2020. DOI: 10.14400/JDC.2020.18.9.453
- [31]J.M. Lee, “An Exploratory Study on Effects of Loneliness and YouTube Addic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the Distance Education During COVID-19,”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7, pp. 342–351, 2020. DOI: 10.5392/JKCA.2020.20.07.342
- [32]M.J. Kim,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University in the On-tact Era,” *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Vol.26, No.2, pp. 31–53, 2021.
- [33]S.L. Woo, G.H. Kim, and S.Y. Kim, “A Comparison of Students’ Perceptions of the Type of Education Changed by COVID-19 – For Students at Universities in Incheon, and Other Gyeongin Areas,”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Vol.34, No.1, pp. 13–29, 2022.
- [34]H.O. Kim, J.S. Yoon, J.H. Kim, and H.Y. Jo, “In the COVID-19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Adaption to College Life of Freshmen at K-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8, pp. 1–10, 2021. DOI: 10.14400/JDC.2021.19.8.001
- [35]Y. Zhang and M.A. Kim,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social Difficulties and Service Nee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52, No.2, pp. 65–93, 2021. DOI: 10.16999/kasws.2021.52.2.65
- [36]X. Fu, S.E. Choi, and B.C. Kim, “A Cas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Chinese Students in the Covid 19 Incid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21, No.17, pp. 891–914, 2021.
- [37]J. Kim, J.-H. Park, M. Moise, B.-G. Yoon, Y.-S.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0, No. 3, 1–10. 2022.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3.1>
- [38]T.J. Lee, K.J. Hong, T.W. Kim, H.S. Choi, M.K. Kim, S.M. Kim, S.H. Kim, O.K. Choi, S.H. Woo, H.J. Kim, and S.M. Kang, “2007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onitoring and Evaluation – Qualitative Study on Recipients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 [39]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Sage, 1998.
- [40]J. W. Creswell,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14.
- [41]W. L. Neuma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4th*

-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0.
- [42]H.K. Choi, "Perceptions of Elder Abuse under Caregiving Situation and Help-Seeking Behaviors: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Elderly and Adult Children Genera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27, No.1, pp. 31-56, 2004. UCI: G704-000152.2004.27.1.009
- [43]R. P. Weber, *Basic Content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1990.
- [44]B. L. Ber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Allyn and Bacon, 2007.
- [45]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Sage, 1985.
- [46]J. H. Humphrey, *Childhood Stress in Contemporary Society*, NY: The Haworth Press, 2004.
- [47]S.D. Noh, "Psychological Impact and Overcom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Due to the COVID-19 Incident," *Theology and Praxis*, No. 72, 331-356. DOI: 10.14387/jkspth.2020.72.331
- [48]S. H. Soo,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Design Future Talent Core Competencies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Design Culture*, Vol.25, No.2, pp. 305-315, 2019.
- [49]Korea Youth Congress News, "College Life after Corona," March 8, 2022. <https://www.youthassembly.kr/news/628764>
- [50]Hankyoreh, "Power in the Picture," August 6, 2022.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53727.html
- [51]J.A. Kwak, K.O. Kim, S.W. Kim, U.J. Kim, S.J. Moon, T.S. Sung, H.S. Sung, J.H. Song, K.H. Um, N.W. Lee, C.I. Lee, H.J. Lee, H.S. Jang, H.C. Jung, H.J. Cho-Hahn, J.H. Choi, Y.J. Hahn, B.H. Hyun, *In Times of Disaster, Ask Again about the Direction of Education*. Seoul: Mindle Publishing Group.